

스웨덴 공교육복지의 발달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홍 세 영

차 례

1. 서론
2. 스웨덴 교육체제의 발달 과정
3. 스웨덴 교육의 특징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공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저출산이다. 10여 년 전부터 한국 사회는 1.2% 미만의 심각한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교육적 차원에서 찾는다면 첫 번째 가계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두 번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제 3자에 의한 아동 보호의 실패이다.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는 학생들 사이의 경쟁구조로 인성교육보다는 학벌, 성공, 스펙이 중요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이어졌다. 자녀의 사교육비는 한

가계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면서 결국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¹⁾. 1980년대 이후 한국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향상과 더불어 사회 활동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만혼 현상과 더불어 아동 보육의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취업모를 위한 아동 양육 제도는 많은 국가들이 공교육 체제에서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자녀는 1명만 낳고 둘째 자녀 낳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미시적 측면에서 학교 폭력의 문제이다.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구타, 왕따, 집단 따돌림, 성 폭력, 자살, 인터넷 및 약물 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폭력의 경우 60%이상이 교실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물리적, 성적, 언어폭력 이외에도 인터넷, 휴대폰 등 폭력 행위가 다양화되고 사이버 테러, 성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스토킹 등 그 양상이 지능화되고 있다. 또한 학교 폭력을 은폐하는 학교도 상당 수 있어서 문제는 가시화된 것 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박효정, 이희영, 2013; 제주일보, 2013년 7월 26일자). 더구나 가해 아동의 경우 사회적 범죄,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피해 학생의 경우 자살, 우울증, 약물 중독 등 정신 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점은 공교육의 실패로 볼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더 이상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으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사실 한국의 공교육은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인성교육, 온종일 돌봄 교실, 고교 무상제도 도입, 자유학기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상화 촉진 특별법” 등을 추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김홍주, 2013).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응급대처법에 불과할 수 있다.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복지를 투입해야 한다. 즉 앞으로 한국은 교육에서 교육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류방란(2013)에 따르면 교육복지를 학교에서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사회적 관계자본, 문화자본, 심리정서적 안정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

1) 한국 가정에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순 비용중 60%이상이 교육비이고 50%이상이 사교육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비용이 크다(백현희, 2012).

는 가정 출신의 아동을 수용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통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여기의 핵심은 교육의 취약집단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이 교육 참여를 넘어 통합이라는 것이다. 통합은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 가정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의미한다. 사실 한국에서 교육복지의 용어는 1990년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 공교육의 문제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복지 의미의 확대는 일반계층 아동들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통합의 관점에서 교육 복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아직도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제공하는 시혜성의 성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통합의 의미를 포함한 교육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스웨덴 사례를 통해 교육복지의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스웨덴 교육체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스웨덴 교육 체제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 하나 스웨덴 공교육의 발달 과정을 통해 교육복지 개념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교육은 역사의 산물이다.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도 초기 공교육이 시작했던 시점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통합을 지향하는 스웨덴 복지 교육은 어떻게 교육복지를 발전시켰으며 현재 그 모습 그리고 향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통합을 지향하는 스웨덴 교육복지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것이다.

2. 스웨덴 교육 체제의 발달과정

2.1 도입기

초기 스웨덴 교육제도의 대중화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

었다. 스웨덴 공교육은 120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여기의 추동세력은 교회였다. 1400년대 교회는 스웨덴 국민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당시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스웨덴은 가톨릭 국가였으며, 가톨릭은 중세 시대에 많은 학교들을 세웠으며, 15세기에는 스웨덴 최초의 대학교 옘살라 대학을 설립하였다. 또한 17세기에는 스웨덴 제국을 위한 기반으로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판사,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시마다 성당과 함께 상급학교(문법학교)를 세웠다(Almén, 2000). 그런데 상급학교(문법학교)는 성직자와 공무원을 위한 학교와 일반 부유계층을 위한 학교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성직자와 공무원을 위한 학교는 비록 그 사회의 교육이 루터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지 못했다. 반면 일반 문법학교는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학생들 구성원도 스웨덴의 부유계층들의 자녀들이 다녔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이후 많은 학생들이 일반 문법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반 문법학교 교사들의 지위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Hartman, 2007). 그러나 초기 가톨릭 주도의 교육은 대중교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특권계층을 위한 것으로 부유층이나 사회적 계급이 높은 자녀들이 진학했으며, 위계적 특징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주도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들은 스웨덴 상급학교의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 대중 교육의 시작은 종교개혁에서부터 기인한다. 1500년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으며 이는 스웨덴 사회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종교개혁은 스웨덴 사회가 루터 교가 대중종교로 발전하는데 기인하였고 이는 종교적 의식과 행위 등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특히 루터교는 스웨덴 대중들의 문맹률을 탈피 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종교 개혁 전 스웨덴은 구교인 가톨릭으로 참선 중심으로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반면 종교 개혁 후 루터교는 문서 중심으로 대중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깨닫고 교리 문답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데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스웨덴 국민들은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했다. 당시 목사는 예배의 행위자이자 종교서

적을 읽히게 하는 핵심 인물이었다고 이들은 우선적으로 시편과 작은 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교육시켰다. 이런 현상이 바로 대중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스웨덴 사회는 대중들이 성경책과 신의 계명을 그들 눈으로 보고 읽을 것을 강화했다. 여기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종교법이었다. 즉 종교법이 스웨덴 교육법의 모태로 볼 수 있다.

1686년 제정된 종교법(Ecclesiastical Act)은 스웨덴 대중교육의 중요한 지점서(milestone) 역할을 하였다. 이법은 대중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고 감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 법은 부모와 주인들이 자신의 자녀와 하인들에게 성경을 읽고 쓰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여하였다. 즉 이 법은 가족의 호주에게(head) 교육자이자 성직자의 역할이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부담한 것이다. 교구의 성직자는 부모가 그들의 의무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점검하는 주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 제도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 제도는 상당 수 스웨덴 사람들의 문맹률을 탈출 시켰으며 가족은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결국 공공 기관에서 선생님을 배출하는 등 초등학교 선생님이 라는 전문직이 만들어졌다.

1842년 스웨덴 최초로 초등학교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중요한 함의 점은 스웨덴 사회에서 최초로 의무교육의 시작이었다는 것이다(Hallén, 2010). 의무교육 연령은 만 7살에서 13살 사이였으며 무상으로 수행되었다. 초등학교 법 체제하여 7~9세는 유아학교, 9세~13세는 초등학교에 진학해야 했으며, 만약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은 민간 영역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²⁾. 의무 교육을 졸업한 후 공부를 더 원하는 대상들은 문법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 이법은 1950년 1962년 교육개혁이 있기 전까지 중요한 스웨덴 교육적 틀을 형성했다. 1842년 초등학교 법은 제정 이후 약 75년 동안은 종교적 성격이 강했다. 종교 교육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다. 루터 교회는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당국이었고, 학교 교장은 목사였다. 또한 스웨덴은 가톨릭 중심의 상급학교(문법학교)와 루터교 중심의 대중교육으로 분리되었는데 전자는 상류층 계급이었고 후자는 하층

2) <http://www.countriesquest.com/europe/sweden/population/education.htm>

계급이라는 점에서 계급 간에 위계질서가 존재했다(이윤미, 장신미, 2011).

그런데 19세기부터 스웨덴 사회에 개혁주의 사상이 유행하면서, 종교중심, 계급중심의 교육에 비판받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현되어야 하며 모든 아동을 위한 공동학교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즉 계층 간의 평등과 통합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이 주장은 현실화되지 못했으나 점증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1919년 초등학교 교과과정은 상당히 변화를 가져왔다. 종교교육은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사회조사, 수학, 모국어 교육이 강화되었다. 교육도 종교적 믿음보다는 시민권에 기반한 교육으로 체제를 확립해나갔다. 결국 학교교육의 세속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장신미, 2013; Halldén, 2010; Hartman, 2007).

1920년대 접어들면서 교육 체계에서 계급, 성별, 지역별 불균등을 낳는 중등교육체제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되었고 1930년대 스웨덴 산업경제는 중등교육이 경제 상황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과 정치체제의 변화는 국가적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성격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장신미, 2013). 1927년 교육법은 여성들도 고등교육(secondary school)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며, 많은 대상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넓히기도 하였다(Halldén, 2010). 이러한 배경은 바로 오늘날 스웨덴에서 통합 교육이라는 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요약하자면 도입기에서 스웨덴 교육 체제는 종교중심이었고 위계적이었다. 교육은 계급간, 성별, 지역별 차별이 존재했었고 이런 점에서 스웨덴 교육은 복지와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스웨덴 대중들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대중교육과 의무교육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도입기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2.2 통합기(1940년대~1990년대)

20세기 초 스웨덴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그리고

미국사회로의 대규모 이민은 스웨덴 사회에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스웨덴 교육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스웨덴 교육의 목적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인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의 구현이었다. 1930년대 집권한 사민당은 인민의 집의 구호 아래 계급간 계층간 평등을 달성하려고 하였으며 복지제도는 사민주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고, 모든 사회제도는 복지제도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 정책도 복지와 결합한 성격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과 결합된 교육 복지가 평등과 인구학적 문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930년대부터 장기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은 1940년대부터 교육체제를 통해 평등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평등, 통합, 민주주의였다. 학교 교육의 개혁은 항상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작동하였다(장신미, 2013). 1940년대 개혁은 학교 내 학생들 사이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개혁이 있기 전 의무학교는 성적에 따라 학생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다. 7년제 의무학교에 다니는 동안 일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중간에 중학교로 진학하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의무학교에서 학업을 마쳐야 했다. 이런 점은 아동들 사이에서도 교육적 불평등이 높다는 점과 성적에 따라 다른 교육은 결국 성인이 된 후 임금에서도 차이를 가져온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1946년 의무 교육 개혁을 위한 학교 위원회가 구성되고 1948년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켰다. 법안의 내용은 의무학교와 중등교육을 통합한다는 것으로 10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종합학교 도입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1950년대 시범 교육은 많은 대중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사실 개혁 후 세대간에 세대내에 불평등이 감소되면서 개혁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1960년대 1970년대 스웨덴 교육은 모든 영역에서 평등이라는 거시적 목표에 영향을 받는다. 당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목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완전 고용과 생활세계에서 평등 달성이었다(신광영, 2013). 그리고 당시 양성 평등은 더욱 화두가 되고 있었다. 1960년대 노동인력의 심각한 부족 사태는 스웨덴 정부가 가정주부를 노동자로 활용하게 되면서 가사 노

동을 대체할 공공 서비스 섹터를 발전시키게 된다(홍세영, 2010). 이런 점은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교육과 복지의 결합을 더욱 공고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여기의 근본 철학이 평등이었다는 점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단지 국가적 노동력을 충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시기 교육은 또한 확대되었다. 의무교육과 고등학교가 무상으로 지원되었으며, 중등학교의 의무화와 고등학교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1960년대 사회민주주의 정부는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체제 개혁을 수행하였다. 개혁의 의도는 교육의 동등한 기회와 사회적 계급 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1940년 후반에 태어난 국민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Erikson and Jonsson, 1996). 만 7세에서 16세 사이에 종합적인 의무교육 학교가 도입되었으며 동시에 교육 체계는 중앙집권화 되었으며, 국가적으로 표준화 되었다(Halldén, 2010).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기,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3가지 형태의 고등학교 중 한군데를 선택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3년제 인문계 학교, 두 번째는 2년제 연속학교, 세 번째 2년제 실업계 학교였다(Halldén, 2010). 연속학교는 실업계와 인문계의 중간 성격을 갖는 학교로 1964년에 신설되었다. 당시 스웨덴 사회의 탈 포디즘의 영향은 보건 교육 등 서비스 부문의 팽창으로 여기에 대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런 노동력들은 9년제 의무교육과 인문계 고등학교 사이의 중간 교육 수준을 요구하고 있었다. 동시에 인문계 학교로 몰리는 학생 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장신미, 2013). 고등학교 시험은 등급제(grade point)로 대체되었으며, 이것은 대학 진학에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되었다. 1971년 고등학교 개혁 전, 인문계학교, 연속학교, 실업계 학교는 서로 분리되어있었으나 이후 통합하였다. 또한 여학교도 폐지되면서 이시기 의무교육의 통합이 완성되었다. 이시기는 교육 내에서도 계층 간 계급 간에 통합이 공고화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노동연령 계층의 성인 중 60%가 의무학교를 졸업했으며 40%는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당

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었다.

1973년 신 학령 전 학교(new preschool) 개혁이 수행되었다. 이 제도는 양성평등제도의 일환으로서 아동의 부모 둘 다 전일제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1973년 신가족법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아동의 부양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 법은 유아교육시설의 필요성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웨덴의 유아교육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이혜란, 1984). 이후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노동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맡겨졌으며, 공공 보육 시설은 돌봄과 교육의 핵심 장이 되었다. 이 제도는 1974년 부모 휴가법과 더불어 스웨덴 양성평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홍세영, 2010). 스웨덴 대학교육(tertiary education: 제 3단계 교육)은 1977년에 개정되었다. 대학조직들은 비대학 조직들까지 통합하였다. 예를 들면 2년제 종합학교 훈련과정과 간호사 과정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이다. 더욱이 성인 교육은 확대되었으며 이는 재교육의 가능성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Halldén, 2010).

1980년대에는 고등학교의 통합의 성격으로 나타났다. 즉 의무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인문계학교, 직업학교, 연속학교 중 1개를 선택해야 했다. 이런 분리는 또한 학교의 유형사이에도 우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학생들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러한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당시 청년 실업률이라는 경제적인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초 스웨덴 사회에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면서 스웨덴 정부는 청년실업자들을 고등학교 진학으로서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직업교육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기 시작하였다. 즉 이런 점은 교육의 초점은 고등교육으로 모아졌다. 더욱이 노동시장의 변화는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확산시켰고 진학 자격확대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또한 중간계급의 성장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되었다. 고등학교 통합형 체제는 이러한 공통의 이해를 묶어내는 방식이었다(장신미, 2013). 사실 1990년 전까지 2년제 고등학교인 실업계와 계속학교는 3년제인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구별되어있었다. 특히 2년제 학교에

진학중인 학생들은 대학을 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었다. 1991년 교육 개혁은 2년제를 3년제로 하였고 인문계, 실업계, 계속학교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즉 하나의 공간에 3가지 유형의 형태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학문교육과 직업교육의 동시 확대 및 고등교육 진학자격 확대, 그리고 학문 직업교육 간 위계적 관계의 해체와 동등화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스웨덴 사회 주요 계급들 간의 이해의 공통성을 창출하였고 다시 그 공통성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통합형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장신미, 2013; Halldén, 2010).

1990년대는 더욱 탈 집중화되면서 교육과 복지의 결합이 더욱 공고해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도입된 학령 전 공립학교는 1995년 학교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중이거나 공부중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 활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을 명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1996년 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동하면서 아동 보육체계가 사회서비스에서 학교 체제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예비학교는 0 학년으로 1998년 초등학교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었다. 유아원, 개발 학령 전 학교, 가정 아동돌봄 기관들은 학령 전 활동의 일부분이 되었고, 방과 후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록된 아동돌봄 가정, 개방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학교 돌봄체제의 일부분으로 흡수되었다(신필균, 2011; Halldén, 2010).

2.3 쇄신기

1990년대 스웨덴 교육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통합, 집합적 준거틀, 사회정의가 개인의 권리, 부모의 선택,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징후는 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다. 여기의 주요 요인은 1991년 우파정권의 집권이였다. 당시 스웨덴은 깊은 경제 침체와 고용율이 하락했으며 연이어 사회지출 비용의 감소해야 했고 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중반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교육은 공공재 보다

민간재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교육성취에 대한 합리화는 집합적이고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가치보다는 개인의 권리, 학문적 진보, 선택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새로운 금융체제가 도입되면서 국가로부터의 자원할당이 지방정부수준으로 이양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세계경제가 스웨덴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본주의, 효과성, 경쟁, 표준화, 선택의 자유, 개인주의적이며 엘리트주의 문화 확산 등의 가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에 스웨덴 교과과정과 교육법령들의 기본가치였던 민주주의, 평등, 연대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동기는 축소되었다. 학교 선택의 기회 확대, 지역적 분리 증가는 집단 간, 집단 사이에 차이를 증가시켰다(Berhanu, 2011).

이런 현상은 2011년 스웨덴 교육법 개정에서 잘 드러났다. 사실 스웨덴 교육법은 1985년 이후 2010년까지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정부는 교육법이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 하에 신 교육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즉 1985년 교육법은 국제화, 탈산업화 등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지 못했으며, 특히 민간 영역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하지 못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책임도 모호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더욱이 스웨덴 사회에서도 교육에 대한 인식이 복지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따라서 정부는 스웨덴 국가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교육은 경쟁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삶에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Sweden, 2011).

신교육법은 2010년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신교육법은 2009년 6월 15일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교육법 위원회에서 제안하였다. 신 교육법에 대한 제안은 양해각서 형식으로 140개의 자문 협의 기구들에게 보내졌다. 2010년 10월 1일 자문 협의기구들은 교육부에 신 교육법 내용에 대한 의견(comment)들을 제출하였고 이는 문서로 발행되었다. 2009년 12월 10일 정부는 지식, 선택, 안전을 모토로 한 신교육법의 제안에 대한 입법 의회에서 의견을 듣기로 결정하였으며 후에

입법 의회는 이들의 관점을 수렴하여 2010년 3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였다. 신교육법³⁾의 핵심은 모든 교육과 교육활동은 지식(Knowledge), 선택(Choice), 안전(Security)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표1>.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1940년대 이후 복지국가 틀을 형성했던 근본 가치 토대위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학교도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교육의 질이 강조되지만 평등과 사회연대성, 민주주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오히려 현재의 개혁을 임금 체계를 향상시키고 직업의 기회를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정의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신교육법의 주요 안전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건강권 강화와 평등권이 더욱 강화되었다. 학생들은 학교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학교 사회복지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2015년까지 학생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5천만 크로나(9천 6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스웨덴 교육법과 스웨덴 차별 금지법은 아동과 학생들을 차별로부터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학령전 학교, 학교, 성인교육프로그램의 학교장들은 차별과 비인격적인 행동을 예방하고 평등을 높이는데 있어서 책임을 강화하였다.

2011년 신교육법은 스웨덴 학교 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은 학생들에게 건강,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의무 교육 기간 동안 교과과정에 더욱 지식 중심의 학습을 강화시키고 국가시험을 좀 더 앞당겼다. 2012년부터 새로운 점수(등급) 체계가 도입되며 의무학교 초기부터 점수(등급)가 매겨졌다. 2011년부터 신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연구와 자격조건을 요구하게 된다. 게다가 신 고등교육체계는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막고 졸업 후 근로자로서 또는 연구자로서 생활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교육법 이후 그 효과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며 향후 2014년

3) 신교육법은 모든 종류의 학교들과 학교에 책임 있는 조직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순한 구조로 된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신교육법은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법률(acts)과 법령(Ordinances)들을 한곳에 모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보다 통일되고(uniform) 일관적인 규정(regulation)이 또한 법이 적용하기에 쉽게 만들었다.

도 선거에 교육개정은 커다란 도마 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민간 주도의 학교 증설과 부모의 선택,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선택권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으며, 민간 학교의 경우 학교 직원의 축소와 자격 미달의 교사 채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취업률 또한 낮은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표1> 신교육법 주요 내용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교육법은 모든 유형의 학교에 대해서 스웨덴 기본 가치를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음. 인권존중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대한 교육의 책임임을 명확히 함. - UN 아동 인권조약에 따라 모든 교유의 근간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되어야 함을 강조 - 학교 보건 및 복지 서비스는 심리치료사와 학교 사회복지사(welfare officer)의 접근성을 강화시킴 -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교장, 관련 조직들의 권력들을 중시시키고 더욱 명확히 함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임 과목 교사들은 전체적인 학교 시스템에 도입. 이들은 박사학위를 받고 4년 동안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한 교사들은 senior 과목 교사로 임명될 것임. - 교사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더욱 엄격해 됨.
선택과 형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및 민간 학교 모두 같은 규정(regulation)하에 규제를 받음. 모든 교육 기관의 출발점은 다 동일함. - 학생, 부모, 보호자들의 자기 결정권이나 건의할 수 있는 권한(예: 운송서비스, 보충학습프로그램 등이 강화됨. - 모든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신 품질 강화 조치 도입. 이는 학교를 위한 각 조직들은 계획, 모니터, 교육서비스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 이것은 교육을 위한 국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 공공 학교의 이사회 형성의 선택은 영구적이어야 함. 지역 이사회는 학교 사인들에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를 결정 하기 위해서임. 이사회 구성원은 학생, 학부모, 보호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들이 다수가 되어선 안 됨. 학습장애 아동에 대한 학교의 행정적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그 규정들이 더욱 엄격해됨. - 학교 급식 식단에 대한 영양에 대한 요구 사항 - 모국어 지원과 모국어 교육을 이전 시행령(ordinance)에서 규정한 것을 신교육법에서 법 조항으로 신설함. - 스웨덴 학교 감사기관은 신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감독을 수행함.

3. 스웨덴 교육의 특징

1990년대 초부터, 스웨덴 교육체제 조직은 상당히 탈중심화되었다. 중앙 정부는 전체적으로 schooling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교과과정 개발,

국가적 목표, 교육 체계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교육 제공기관은 교육활동 수행, 교육 서비스 조직 및 운영, 자원 활동, 국가적 교육 목표 수행 등을 책임지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 내에서 학교 조직은 상당히 탈중심화 되면서 높은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3.1 학교 행정 조직

3.1.1 중앙정부

(1) 교육 및 조사 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교육부 직원은 약 200명 정도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비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나 정부가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스웨덴 교육 국가 기관(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스웨덴 교육 국가 기관은 학교 영역에서 가장 큰 중앙 행정기관이다. 여기서는 학령 전 활동들, 학령기 아동 돌봄서비스, 의무 학교, 고등학교, 지방성인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기관은 교육에 대한 기획서를 작성하고 점검을 한다. 특히 여기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의 질과 성과를 조사하고 독립학교들에 대한 재원을 보조하고 독립학교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또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 연구 지원, 교사들 훈련 등을 지원한다.

(3) 스웨덴 학교 감사부서

스웨덴 학교 감사부서는 지방 행정기관과 독립학교들이 현재의 법과 규정들을 준수하는지 보장하는 것이다. 학교 감사부는 학령 전 학교, 학령기 아동 복지, 학교 경영, 성인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는 중앙기관이며 이 기관의 목적은 모든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다. 학교 감사부는 모든 학교들의 정기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학교 감사부는 새로 신설된 독립학교들에게 허가증을 주

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적 감독을 수행하고 독립학교가 재정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적격성 여부를 결정한다.

(4) 특수 교육과 학교를 위한 국가 기관

특수 교육과 학교를 위한 국가 기관은 특수 교육에 공공 자금을 할당하는 책임을 진 중앙 행정 기관이다.

(5) 연구 지원을 위한 스웨덴 이사회

연구지원을 위한 스웨덴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할당에 책이 있다.

(6) 성인교육 국가 의회

정부와 스웨덴 국회에 의해 위원회가 구성된 성인교육 의회는 성인교육협회, 민속 고등학교에 예산을 책정하고 재정적 기록, 정부에 연간 보고서 작성하고 평가한다. 또한 자유성인 학교를 평가하고 정책들을 점검한다.

3.1.2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의무학교들은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이는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은 지방정부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등교하지만 타 지역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는 아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16세 20세 사이의 젊은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 성인 교육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성인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성인교육의 내용은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 지방자치 성인 교육과 고등교육은 국가적 목표에 부응해야 한다.

3.2 발달단계별 학교 유형

3.2.1 학령 전 학교

스웨덴 학령 전 학교의 모태는 민간 주도의 탁아소(creche)와 유아 학교(infant school)이다. 1854년 처음으로 유아탁아소(creche)가 문을 열었다. 유아탁아소(creche)는 저소득 한 부모 여성의 자녀들을 위한 곳이었으며, 여성이 노동하는 동안 아동을 양육해주는 등 위탁가정의 대안책이었다. 초기 탁아소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자선적 성격이 강했다. 1944년 일부 공적 보조가 시작되면서 유아탁아소(creche)는 주간 보호(day care center)로 변했다.

1836년 유아학교가 만들어졌다. 탁아소가 빈곤 아동의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유아학교는 사회적 목표에 부응하는 아동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1890년대 유아학교는 유치원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당시 독일의 프리벨의 교육 철학에 맞추어 교육을 시작하였다. 프리벨의 핵심은 놀이(play)이다. 프리벨에 의하면 놀이는 아동의 내적외적 세계에 경험과 창조성을 부여하며, 참된 아동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아 교육은 가정에 보완책이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주간 아동 양육은 교육적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철학은 최근 스웨덴 교육 현장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Gunnarsson, Korpi, and Nordemsten, 1999). 그러나 이 유치원은 중산층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소득 층 아동들은 조기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여 1904년에서 19302년 사이 공공 유치원은 취약계층의 아동들도 유치원 입학을 허가하였다. 이런 점은 당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계급간의 갈등을 완화시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이는 초기 아동기에서 교육과 복지의 결합의 시초로 볼 수 있다(Gunnarsson, Korpi, and Nordemsten, 1999).

1960년대 스웨덴 사회에 노동력 부족사태는 많은 기혼여성들을 노동시장에 고용함으로써 아동 양육의 사회화가 진행되었다. 더군다나 여성들은

여성들의 평등과 민주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고무함으로써 공공 보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1968년 스웨덴 아동 양육 위원회는 공공 아동 보육을 아동 교육, 보육, 감독을 결합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학령전 학교(pre-school)은 이 당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자존심 강화와 독립이었다.

1975년 스웨덴 학교 법은 교육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공공 보육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 >에서도 알 수 있지만 조기 교육은 복지와 결합해야 함을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그 특징도 가족, 학령전 학교,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하나의 교육과 복지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후 1980년대에는 학령전 학교 연령을 1.5세로 낮추면서 대기자를 축소했으며, 많은 여성들의 고용율을 높이기도 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는 지방정부에 이전의 양적 확대 책임과 함께 서비스 질에 대한 책임도 부여함으로써 지역 특수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스웨덴 조기 교육 정책은 가족정책의 핵심이자 스웨덴 복지 모델의 큰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2> 1970년대 스웨덴 조기 교육(ECEC)의 국가 전략

- | | |
|---|--|
| ○ | ECEC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과업이다. |
| ○ | ECEC는 보육(care)와 교육을 결합하여 고무적이고 발전적인 활동을 제공하고 아동들의 건강한 생활 상태를 보장해야 한다. ECEC와 부모의 관계는 하나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
| ○ | ECEC는 모든 아동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들에게는 특수한 지원을 해야 한다. |
| ○ | ECEC는 부모가 직장생활이나 공부를 병행하면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 하며 ECEC는 가족과 이웃일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
| ○ | ECEC는 공적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일부 추가 요금은 부모가 담당해야 한다. |
| ○ | 지방정부는 ECEC가 모든 아동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child care system 확대해야 한다. |

(1) 유아원

스웨덴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에 의해서 양육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육기관에서는 부모 모두가 직장에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부모 중 한명이라도 집에 있다면 아동을 맡길 수 없다. 또한 한명이 시간제로 일을 한다면 그 시간만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 연령계층들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현재 만 1세~ 5세 연령의 아동들은 만약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공부중일 경우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현재 10명 중 8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국제 평균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보육료는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계층들은 약 20% 정도 부담하지만 1260 크로나 이상은 부담하지 않는 상한선이 있다. 보육료는 지방자치단체(구청)에 납부하면 지방정부에서는 보육기관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보육기관은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했을 경우 보육기관이 아닌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학령전 교육의 주요 특징은 “놀이(play)” 중심과 ”양성평등“을 강조한 교육이라는 점이다. 스웨덴에서 놀이는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 여기의 놀이는 협동, 관용,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웨덴 유치원 교육은 야외학습이 많다. 4계절 활발한 야외학습을 수행하며, 혹독한 겨울 날씨가 아니면 야외에서 낮잠을 자는 것도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 또한 중요시하고 있다. 스웨덴 보육교육은 성별에 관련 이 모두가 자신의 삶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8년 학령 전 학교 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양성평등이었다. 각 아동들은 사회가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성별 역할에 관계없이 개인의 삶을 개발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 특히 아동으로부터 어릴수록 무조건 수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어른으로 배우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기반 한 교육은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유치원(초등학교 준비반)

유아원을 마친 아동들은 유치원에 입학한다. 다른 말로 초등학교 준비반이라고 한다. 즉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동들은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 여기서는 아동의 학습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3.2.2 의무학교

스웨덴에서 공식적으로 의무학교는 1842년에 도입하였다. 이 체제는 1900년대 초기까지 이어졌다⁴⁾. 1940년대 스웨덴에서는 교육개혁이 있기 전 스웨덴의 아동들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민속학교(*folkskolan*)에 다녔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3~5년 동안 수학하였다. 그러나 여기의 제도는 지방자치도시마다 차이가 있었다. 중학교에 진학할 성적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의무학령기가 끝날 때 까지 민속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했다. 의무학령기는 기본적으로 7년이었으며 어떤 지방자치도시는 8년인 곳도 있었다.

그러나 1940년대 학교 개혁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증가하였다. 특히 스웨덴 교육체제가 다른 서구 국가들은 이미 8~9학년 의무학교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준비 중인데 스웨덴은 아직 준비조차 안 되어 있다는 점이였다. 1948년 국회 위원회는 9년제의 신 의무 학교제 도입을 위한 안건을 제출하였다. 신의무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생들의 성적에 관계없이 모두 9학년 까지 함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또한 교과 과정에 영어를 주요 과목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학교개혁은 점진적으로 수행되었다. 1949년 초부터 14개의 지방자치 정부에서는 학교 개혁을 수행하였다. 1962년 스웨덴 의회는 개혁은 전국적으로 수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모든 지방자치도시들은 1969년까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받았다. 여기 교육의 핵심 목적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고 높은 임금 소득을 획득하는 것이였다(Petter Lundborg; Anton Nilsson and Dan-Olof Rooth. 2012).

전술했듯이 개혁이 있기 전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은 7년이었으며 어떤

4) <http://www.sverigeturism.se/smorgasbord/smorgasbord/society/education/compulsory.html>

곳은 8년인 곳도 있었다. 5학년이 되면 성적이 우수한 아동들은 5년제 중학교에 진학하거나 7학년 초 3~4년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 의무학교에 남아있었다.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에 이원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학생들 사이에 계층화를 형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스웨덴 의회는 9학년으로 학교를 통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을 보고 개혁을 수행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의무 교육을 연장하고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69년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신 종합학교를 운영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의무학교를 마치면 학생들은 3가지 유형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직업학교, 고등학교, 기타 학교이다. 그러나 9학년 때 진로가 학교 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분리되지 않는다(Holmlund, 2006).

개혁 후 효과는 사회적 불평등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계층들 사이에 교육의 불평등이 감소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이 졸업후 임금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이다(Erikson , 1996; Meghir and Palme , 2005).

(1)의무학교(종합학교)

스웨덴 아동들은 9 년 동안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의무학교는 7세부터 16세 까지 이며 의무학교는 초등학교 1~3학년, 중등학교 4~6학년, 준 고등학교 7~9학년으로 나눌 수 있다. 6세부터 13살의 아동들은 학교 수업 전 후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방과 후 센터, 주간 보호 가정, 방과 후 개방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2)사미학교

사미학교는 6년제 의무교육 체제이다. 사미학교에서 교육은 학령기 사미족 아동들에게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사미 아동들은 7~9학년은 일반 의무교육 학교에 진학해야 하며 이는 스웨덴 통합정책의 하나이다.

3.2.3 고등학교

(1) 일반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3년 동안 17개의 국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교과과정은 국가적 수준에서 결정되며 학습결과도 국가적 수준에서 결정된다. 17개 중 4개의 프로그램은 인문계를 위한 교과과정이고, 13개는 직업 계열 중심의 교과과정이다. 모든 국가 프로그램은 8개의 주요 과목이 있으며 이는 모두 동일하다. 또한 지역 특수적인 교과과정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국가 교과과정과 함께 제공된다.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이며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의무교육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을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제 2외국어, 영어, 수학시험에서 통과해야 한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앞의 과목을 포함해서 9개 과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총 12개 과목이다. 그러나 실업계학교(직업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5개 과목으로 총 8개 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 지적 장애 아동을 위한 고등학교

지적 장애 청소년을 위한 학교로 무상이며 의무교육은 아니다. 이들은 지적 장애 의무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학할 수 있다. 지적 장애 청소년들은 여기서 국가적이고 특수적으로 설계된 개별적인 프로그램 교과과정에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8개의 국가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여기 국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들은 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청각 장애인 및 신체장애인 고등학교

청각 장애인 또는 중증 신체 장애인들은 특수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이들은 특수한 욕구를 가진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평등의 원리와 통합의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이들을 제외한 기능적으로 손상이 있는 학생들은 일반 의무학교에 진학한다. 교과과목은 많지 않지만 직업훈련 중심으로 진행된다.

(4) 독립학교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를 독립학교라고 하며, 현재 스웨덴에서 독립학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의무학교 학생 12%와 고등학교 학생 24%는 독립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 중에는 외국인 학교도 있으며 이들 학교들도 스웨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3.2.4 기타: 성인교육

스웨덴의 성인교육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범위도 상당히 넓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성인교육이 존재하고 있으며, 성인교육을 운영하는 제공주체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회사 등 다양하다⁵⁾. 그 효과성도 높다. 1991년 자료에 따르면 18~75세 인구의 14%가 다양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등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매해 전체성인 인구의 10% 이상이 성인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성인 교육은 통합의 정책이자 문화적응의 목적으로도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⁶⁾.

- 지방자치 성인교육: 기초 성인교육, 고등성인교육, 후기 훈련과정
- 지적손상 성인을 위한 교육
- 스웨덴 언어 교육
- **Supplementary** 성인교육과정: 직업 기술, 공예기술 등
- 자유성인교육: 국민고등학교와 연구 협회에서 제공.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음.
- 고등직업 교육: 노동시장 연계 교육. 6달에서 3년 과정.
- 고등교육: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에서 제공. 단일 과목과정, 연구 프로그램. 기초 수준, 상등 수준, 연구 수준 3단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짐.

5) http://www.unesco.org/education/uie/pdf/country/Sweden_app2.pdf

6) <http://hassler-j.ies.su.se/conferences/papers/sohlman.pdf>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스웨덴의 교육복지는 스웨덴 사회의 평등이라는 복지국가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따라서 교육의 핵심은 현재, 미래의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계층 간, 계급 간 불평등과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스웨덴 사회는 처음부터 교육이 복지와 결합한 것은 아니었다. 도입기에서 스웨덴 교육은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가톨릭은 스웨덴 교육체계의 커다란 뼈대를 형성해주었고 루터교는 대중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즉 이 당시는 종교와 교육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당시 아동들의 교육차는 존재했었고 사회적 계층이 유지되고 있었다.

통합기는 교육과 복지의 결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40년대 이후 사민당의 장기 집권은 사회적 통합과 평등이라는 정치적 이념을 달성하고 노동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혼여성의 노동자화, 인구학적 문제 극복을 위해 교육에 복지를 투여하였으며 2000년대 까지 지속되었다. 모든 아동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의무교육 기간 연장, 고등학교 통합,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학령기 학교 등 이러한 노력은 계층 간 그리고 계급 간, 세대 간 세대내 통합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의 노동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의 제공 등은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쇄신기에는 교육과 복지 그리고 품질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스웨덴은 기존의 교육체제의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통합기 평등의 가치만을 강조할 수 없고 학생들의 인적 자본을 높이려는 시도가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사회복지사, 심리사 등의 더 많이 충원하고 지역사회에 연계 등은 통합기보다 복지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스웨덴 사회도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처럼 경쟁과 선택, 효율을 교육에서 강조하는 모습은 스웨덴 복지 모델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 교육제도는 복지와 결합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스웨덴 사회는 교육을 복지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은 현재, 미래 복지 상태를 결정할 수 있고 개인의 삶과 계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또 소득과 인간 수명의 차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 복지제도의 핵심적 관심사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 복지제도는 변하고 있다. 세계화와 보수 연합정권의 집권, EU 가입 등은 스웨덴 복지 모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웨덴 교육 체제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한국과 스웨덴 교육에서 양적인 면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스웨덴보다 월등하다. 한국이 경우 초·중등학교 진학률이 100%이며 대학교 진학률은 85%로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의구심이 든다. 스웨덴은 현재 IT 산업, 노벨상, 특히 국가 등을 감안할 때 한국보다 우수하다. 국민소득도 1인당 4만 불로 이는 미국과 비슷한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왕따, 자살률이 낮으며 사교육도 한국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다양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한국 교육에 철학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법 제 2조에 홍익인간 이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실상부할 뿐 실제로 교육 현장에 배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최관경, 2010). 반면 스웨덴의 평등 이념은 모든 교육 현장에 배태되어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국민을 통합하는 등 실천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편파적으로 지식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교육은 지식, 규범(norm), 가치(value)에 모두 그 중요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학문적 소양이외에 특별 활동, 자원 봉사 등을 중요시한다. 반면 한국은 입시위주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 모든 교육은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런 부분은 스웨덴 학생들의 지성, 인성, 품성을 양성하는 중요한 곳이라는 곳이다. 반면 한국 교육은 입시위주로 맞추어지고 있다. 경쟁의 도가니 속에서 인성교육과 교양은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부분이다. 스웨덴 국민들은 교육의 문이 개방되어 있다. 학업을 중단했더라도 언제든지 재교육의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스웨덴 국민들에게는 무상으로 지원되며, 특히 성인들이 대학에서 공부중이거나 직업 훈련 기간일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적 보조 및 사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성인의 경우 재교육을 위한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와의 결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학교는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인성과 품성 교육 또한 그 중요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인들의 경우 재교육이 현실적합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홍주. 2013.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새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 한국 교육 개발원.
- 류방란 외. 2013. 『교육 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복지의 발전 과제』. 한국 교육 개발원.
- 박효정, 이희현. 2013.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 참여율 제고 및 결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 개발원.
- 신광영. 2013. “스웨덴 복지 모델의 사회적 기초: 견고한가 아니면 흔들리고 있나”. 『스칸디나비아 학회 학술자료』.
- 이윤미·장신미, 2011, “스웨덴의 통합형 후기중등학교 개혁: 전개과정 및 쟁점”. 한국 교육사학.
- 이혜란. 1984. “스웨덴 유아교육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신미. 2013. “스웨덴 후기 중등교육체제의 형성”. 『스칸디나비아 학회 학술자료』.
- 최관경. 2010.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육사상연구회 제50회 학술논문집.
- 홍세영. 2011.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와 경제적 지위에 따른 가족정책형성과정과 성격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Gunnarsson, Lars., Barbara Martin Korpi and Nordenstam, Ulla. 1999.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OECD.
- Halldén, Karin. 2008. “The Swedish educational system and classifying education using the ISCED-97”.
- Hartman, Sven. 2007. “Edu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ies – Turkish and Swedish”.
- Holmlund, Helena. 2006.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Assortative Mating Effects of an Educational Reform*.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tockholm University

Lundborg, Petter, Anton Nilsson and Rooth, Dan-Olof. 2012. *Parental education and offspring outcomes: evidence from the Swedish compulsory schooling reform*. HEDG.

Perspectives. eds. Marie Carlson, Annika Rabo and Fatma Gök. 2007. "Swedish Research Institute in Istanbul". *Transactions*. vol. 18 (Stockholm 2007). pp. 257-265.

<Abstract>

Th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system in Sweden

Hong, Sae Young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efinition of the education welfare analysis on Swedish education system. So, by characteristic, the history of Swedish education are classified three phases called Introduction, Integration, Renovation. In Introduction, it started the public education. At that time, the religion is an important role. The Catholic influenced the structure of public education. The Lutheran stimulated the popular education. Although many people had an opportunity of education, they kept the inequality of class. In Integration, the political ideology, the Social Democratic, built on welfare state so education combined welfare. They reformed the education and school for equality. The pre-school provided children whose parents are in working or studying care and education. The school-aged children can use the education service free and spend 9-year compulsory education. In Renovation, global economy demands the translation of Swedish welfare state. So Swedish education focuses on choice, quality, and competition more and more, which are based on liberalism. Although the Swedish education system is influenced by capitalism, the root of that is social democratic. So the education welfare in Sweden means equality and integration.

Key Words: education system, religion, welfare, the social democratic, liberalism

* Hanzhong University

성명: 홍세영

소속: 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소: 강원도 동해시 지양길 200 한중대학교

전화번호: 033 520 9447

Email: sayyoung@hanzhong.ac.kr

논문접수일: 2013. 7. 23 논문심사일: 2013. 8. 5 게재확정일: 2013. 8.25

